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은 어떤 개념을 검색한 화면이다. A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검색

A는 전체 사회 구조로서의 사회 체제 내지 사회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체계적인 사상, 혹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에 관한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A가 싹튼 것은 사회가 성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시대 플라톤(Platon)의 “국가론”도 한 가지 예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유럽에서 근대 이후로 발달되어 왔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중세의 신학적 우주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였고 현세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 추구하고 정신적 자유의 관념을 넓혀 갔다. …(후략)…

- ① 집단이나 개인들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 된다.
- ②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 ③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의 구현 방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④ 현재 사회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며, 이상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⑤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하여 동일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

2.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자연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그 가운데 혼연히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나)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즉, 세상에 독립적이거나 고정된 궁극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물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 보 기 >

- ㄱ. 인간은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고 자연과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ㄴ. 자연은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이성을 지닌 인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 ㄷ. 자연의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 의존하는 협동의 관계에 있다.
- ㄹ. 자연은 그 자체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가)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A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고,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마라.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식의 주인이 되지 마라. 몸으로는 끝없는 것을 다 터득하고 마음을 풀어 놓되 아무 혼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남김없이 향유하되 이익에 눈을 돌리지 말고, 텅 비우기만 하라. 지인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배웅하지도 않고 마중하지도 않으며, 따르되 간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을 맡으면서도 그로 인해 상처 입지 않는다.</p>
(나)	

- ① 도덕적 수양과 학문 연마에 힘써야 합니다.
- ② 인위적 예법이나 도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③ 깨달음과 수양을 통해 해탈에 이르러야 합니다.
- ④ 외물(外物)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 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격물이란 사물에 직면하여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일정한 이(理)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지란 나의 지(知)를 점진적으로 축적하여 궁극에까지 이르게 하여 내 마음의 본체를 온전히 하고 또한 그 기능을 크게 활용하는 것이다.</p> <p>을: ‘격(格)’은 ‘정(正)’이고, ‘물(物)’은 ‘일[事]’이다. 일이란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발동한 의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의 마음이 발현된 생각과 관계하는 것으로서의 물은 주로 도덕적인 실천 행위를 가리킨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A</p> <p>예</p> <p>B</p> <p>예</p> <p>갑의 입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아니오</p> <p>C</p> <p>예</p> <p>을의 입장</p> </div> </div> </div>

- ① A: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 ② A: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③ B: 성(性)에는 인의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 ④ B: 앎(知)과 실천(行)은 선후의 구별이 없는 것인가?
- ⑤ C: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뒤에 마음[心]이 형성되는가?

5. 갑, 을이 제시할 바람직한 사회의 구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는 내적인 결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사유 재산과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을: 누구에게나 주어진 몫이 있듯이 통치자나 수호자 계층에도 주어진 몫이 있다. 각자가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때, 개인도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도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 ① 갑: 계급 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부를 증대해야 한다.
- ② 갑: 각자의 업적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을: 각자 자신의 덕 또는 탁월성을 가장 잘 발휘해야 한다.
- ④ 을: 각 개인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 ⑤ 갑, 을: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계급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6. (가) 사상가가 (나)의 K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좇는 행동은 외부의 사물로부터 자극받아 형성된 것이며 인간 본성을 흐트러뜨린 행동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좇는 행동은 외부로부터 자극받아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禮)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좇는 마음을 통제하고 교화해야 한다.
 (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K는 새벽에 길을 가다가 현금 5백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발견하고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지 망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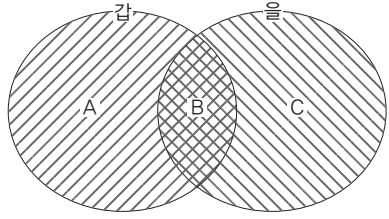
- ①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 ② 인위가 아닌 무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③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와 양능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④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늘의 법칙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 ⑤ 성인이 제정한 예의 법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7. 다음 글의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은 모두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다투는 고려의 불교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려 하였다. 갑은 천태종을 중흥시켜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또 호국 기원의 목적과 교학 진흥의 뜻을 겸하여 “대장경”을 수집하고 간행하였다. 12~13세기에는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타락하는 승려들 또한 많았다. 이때 이를 각성하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불교계의 사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승려가 을이다. 그는 산림에 은둔하여 정혜에 힘쓸 것을 주장했다.

- ① 갑은 깨우친 후에도 수행을 계속할 것[頓悟漸修]을 강조하였다.
- ② 갑은 선종 중심, 을은 교종 중심으로 불교 공파를 통합하려 하였다.
- ③ 을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④ 을은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원효의 화쟁 사상을 계승하였다.

8.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사단과 칠정을 대응시켜 각각 나누어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것이 발현하는 데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그 주로 하는 바에 따라서 이와 기로 분류하여 소속시킬 수 있다.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을: 순수한 도덕심이 드러난 사단과 일반적인 감정인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다. 또 도덕심은 일반적인 감정 중에서 선한 것만을 말한 것이지, 두 가지가 별개는 아니다. 사단과 칠정,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을 관련시켜 말한다면 사단은 도심이라고 할 수 있고,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범례> A: 갑만의 주장 B: 갑, 을의 공통 주장 C: 을만의 주장 </div>

- ① A: 칠정(七情)은 사단(四端)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A: 이(理)는 기(氣)가 발하게 하는 근거이므로 발할 수 없다.
- ③ B: 칠정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그 위에 타는 것이다.
- ④ C: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근원은 다르다.
- ⑤ C: 사단은 성(性)이지만 칠정은 정(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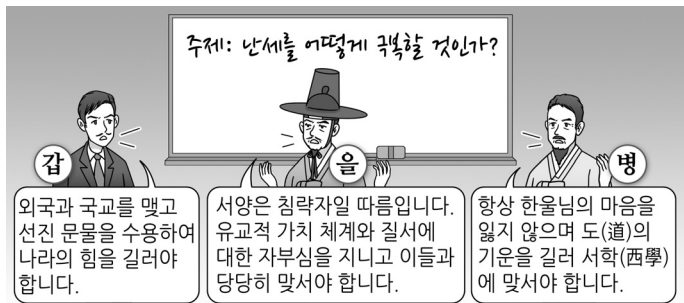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에만 V 표시를 한 학생은?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면죄부 없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모든 신앙인이 곧 성직자이자 사제인가?		V			V	V
교회의 장엄한 예식보다도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가?		V	V		V	
그리스도교 최고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가?				V	V	V
신의 은총이 없이 사제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V	V		V

- ① 갑
- ② 을
- ③ 병
- ④ 정
- ⑤ 무

10. 그림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의 가상 토론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적양(斥洋)을 주장하며 사학(邪學)을 배척할 것을 강조한다.
- ② 을은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리학적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 ③ 병은 민족 주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등 사회를 추구한다.
- ④ 갑, 을은 유교 질서를 지키면서 근대화된 서구 문물의 수용을 강조한다.
- ⑤ 을, 병은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꽃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꽃의 실재를 전제해야만 하는 것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적 세계가 존재한다.

○ 이상적 인간은 각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바를 충족시키며, 어떤 구성 요소도 다른 요소의 적절한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상적 인간은 건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인데, 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며 자신과 갈등을 빚지 않으며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①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은둔자적인 삶을 살아간다.
- ②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실현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 ③ 자연의 질서를 관조하는 데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추구한다.
- ④ 현실을 초월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참모습을 모방하고 실현한다.
- ⑤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려는 굳센 의지력을 기른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에 질서가 존재하는 근거는 감정에 있다. 자신의 주관에 매몰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시행착오적 경험을 통해 반성적으로 인위적 규약을 정하게 되는데, 그 반성하는 감정·정서가 도덕감이다. 도덕감은 자신의 유용성과 이해에 근거하여 쾌와 불쾌를 느끼는 원초적 감정에서 후천적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공감에 기초하여 타인의 이해와도 공유할 수 있는 동정심·인간애가 있기에 객관성을 지닌다.

- ① 감정보다 이성을 통해 도덕적 실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공감이 도덕성의 기초이다.
- ③ 옳은 행위와 악한 행위는 모두 시인(是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④ 이익을 증진하기보다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인과 법칙과 같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절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13. 다음 주장을 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적절한 방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 그리고 판단력이라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 이성은 원리나 원칙을 찾아내는 순수한 이성이며, 도덕 원리를 찾아내는 이성이기도 하다. 반면, 실천 이성은 순수 이성이 찾아낸 도덕 원리를 실천하게 하는 도덕적 의지 규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 이성은 선의지를 격동시켜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는 실천 이성이나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

<보기>

- ㄱ.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 ㄴ. 행위의 동기보다는 최대의 결과적 선을 이루는지를 검토한다.
- ㄷ. 도덕을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하는지 검토한다.
- ㄹ.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는지 살펴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내포된 의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각자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모든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만 정당하다.

○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재화가 합리적으로 재분배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약자는 다수의 횡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보기>

- ㄱ.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 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ㄷ. 재화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ㄹ. 원초적으로 평등한 가상적 상황에서 계약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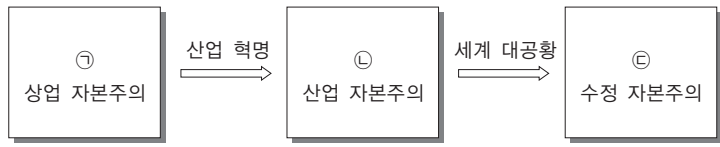
15. 갑, 을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정의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에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는 무엇이 될 수 있으며, 그 스스로 되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된다.

을: 하늘은 사람에게 선을 하려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하려 하면 악을 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선을 택해서 행하면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택해서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인간의 행동은 본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가?
- ② 인간에게 본질을 부여할 신(神)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 ③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행할 수 있는가?
- ④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인가?
- 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 존재인가?

16. 그림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지리상의 발견과 해외 무역의 확대 과정과 관계가 깊다.
- ② ㉡에서는 공장제 기계 공업을 통하여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 ③ ㉢은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였다.
- ④ ㉡에서 ㉢으로 전환되면서 자유 방임주의가 강화되었다.
- ⑤ ㉡에서 ㉢으로 전환되면서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 증시되었다.

17. 갑, 을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치의 핵심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이는 민의를 존중하는 덕치를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을: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에게	비판 내용
①	갑	을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간주해야 합니다.
②	갑	을	국민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로 간주해야 합니다.
③	갑	을	권력자가 잘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을	갑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⑤	을	갑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야 합니다.

18. 빈칸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주변의 민족을 무시하거나 정복하려는 태도는 배격해야 한다. 특히 지구촌 분쟁의 양상이 사상과 이념 대립에서 문화적, 민족적 대립으로 변화하는 특징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 준다.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전쟁이 문화적 우월성 또는 종교적, 민족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민족주의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긍정적,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

- ① 자신의 민족주의가 지니는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관용의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세계 시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③ 인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 ④ 자기 민족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내적인 단결심을 고취해야만 한다.
- ⑤ 자신의 민족이 추구하는 목적이 세계 시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지지할 수 있는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보 기>—

ㄱ.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ㄴ. 개인의 행복은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ㄷ. 사회는 공동선의 추구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ㄹ. 인간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다음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가), (나)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사회주의 체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이념적 목표인 '계급 없는 사회'라는 유토피아적 목표와 현실적으로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근대화로의 목표 간의 갈등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후진적인 경제적 상황 속에서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란 실로 절실한 과제였다. 그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가) 평등주의 노선과 (나) 실용주의 노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였으며, 어떤 나라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체제 위기를 맞아 다른 쪽으로 급선회하기도 하였다.

◎ 학생 답안

사회주의의 이상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이다. 그런데 (가) 평등주의 노선을 추구하면 ㉠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되고, ㉡ 일에 대한 동기는 약화되며, ㉢ 계급 간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어 경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게 되면 ㉣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게 되어 ㉡ 일에 대한 성취 동기를 장려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기반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